

교환학생, 리투아니아와 빌뉴스 대학교에 대하여

(리투아니아와 빌뉴스 대학 홍보를 결들인 교환학생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 2학기 현재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18학번 이**입니다.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있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교환학생을 신청하기까지

사람들마다 교환학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닌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인종 사이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먹었지만, 처음엔 대부분의 남학생들처럼 군대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분명 군 생활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1년 6개월을 허비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환학생을 간다는 게 부담이 되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은 대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 같습니다.

· 준비 방법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와, 가고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 점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공인 언어 시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가고자 하는 나라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신 후, 그에 맞춰 어학 점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바로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교환학생을 마음먹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구되는 어학 점수를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엔 국제협력본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었는데, 프로그램 수수료 시 수업료도 돌려주고 시험료도 지원해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추가 점수도 주기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학 점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 “예비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 드립니다.

· 나라 선택 과정과 내가 선택한 리투아니아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먹었더라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어느 나라, 어느 대학을 갈지’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들으면서 학기 중 틈틈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간 육로로 국경 이동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가는 것에 비해 교통권도 굉장히 저렴한 유럽이라는 대륙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유럽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유럽 내 대학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학과 나라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환학생을 신청하고자 마음먹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리투아니아, 그리고 빌뉴스 대학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선택한 리투아니아와 대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중부와 동부, 북부 사이에 위치한 발트 3국 중 하나로 인구수 275만 명으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 작은 나라의 수도인 빌뉴스에 위치한 빌뉴스 대학에서 현재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모르실 거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유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가 아닌 리투아니아라는 한국인에게 있어 많이 생소한 나라이다 보니 교환학생을 간 저를 신기해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리투아니아인들도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하면, 왜 다른 좋은 나라들을 두고 이 할 것도 많이 없는 나라로 교환학생을 왔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저 또한 사실 교환학생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투아니아에 큰 애정이 있지도,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19년도 유럽 배낭여행 당시 잠깐 스쳐 지나갔던 도시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도 도시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고, “아 이런 나라, 이런 도시도 있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여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리투아니아를 와야겠다 마음먹고 교환학생을 신청할 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리투아니아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생소한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이 아닌, 완전히 낯선 환경이라는 점에서 왠지 모를 매력을 느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으로 한 번 방문했던 나라라 아예 낯선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더 낯선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리투아니아, 그리고 빌뉴스 대학은 분명 후회하지 않을 교환학생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통해 추천하고자 합니다.

· 리투아니아 현지 생활과 빌뉴스 대학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 또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이 두 곳이나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분명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낯선 나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빌뉴스 대학만 하더라도 현재 10명이 넘는 한국인 교환학생이 있기에 리투아니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낯선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면 학생으로서는 다소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유럽 내 나라 중 제법 물가가 싼 나라에 속한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할인을 받으면 월 7천원 정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대학 기숙사는 2인실 기준 월 12만원 정도이며 개인적으로 마트 내 가격들도 나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교환학생을 마음먹었다고 해서 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학은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시작 전 학교 측에서 버디를 지정해주어 궁금한 점이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강 첫 주 오리엔테이션, 시티 투어, 교환학생 환영 파티, 동아리 설명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환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또 여러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 또한 버디를 통해 학기 시작 전 기숙사 보증금과 학생 카드를 미리 신청할 수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수업 방식

수업 방식도 한국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교수님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많은데, 대부분의 유럽 대학도 비슷하겠지만 빌뉴스 대학 또한 모든 수업에 세미나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수업은 전부 다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수업 시간이 교수님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 학생과 의사소통하며 토론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강의식 수업만 들어오던 저에게 있어 굉장히 새로운 수업 방식이었으며 꽤 당혹스러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 저희에게 발언권을 주셨고, 모든 학생들은 당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교수님과 토론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닌 제게 있어서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내 의견이 틀리거나 이상하면 어떡하지?’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해주고 제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통해 나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말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매 순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은 굉장히 새로운 수업 방식이었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풋살 동아리

리투아니아는 풋살보다는 농구가 더 인기가 많은 나라이지만, 대학 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공을 찰 수 있도록 풋살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을 잘 차지 못하더라도 열정만 있다면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이고 교환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여러 교환학생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었습니다.



- 하이킹 동아리

하이킹 동아리는 개인적으로 리투아니아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 동아리이자,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된 동아리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리적으로 산이 없지만 많은 숲과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킹 동아리에서는 리투아니아가 품고 있는 여러 자연들을 하이킹하며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이 풀타임 학생이라 교환학생들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하이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동양인은 저밖에 없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주고, 챙겨 주며 잘 이끌어주었기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일로 하이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박 2일 하이킹도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 한 학기만 머무는 교환학생이다 보니 침낭을 구매하기가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측에서 침낭과 매트를 선뜻 빌려주어 1박 2일 하이킹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나 그냥 단순하게 생활했었다면 접하지 못했을 리투아니아의 여러 자연들을 둘러볼 수 있었고, 호수가 보이면 그냥 들어가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전통 사우나와 캠프파이어를 하는 등 여러 뜻깊은 경험들과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정말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동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리투아니아와 빌뉴스 대학에 흥미를 느끼고 계신 학생분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하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 한인교회

혹시라도 리투아니아를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한인교회 또한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아주 작은 나라이고,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또한 극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빌뉴스에 한인교회가 한 곳 존재합니다. 목사님 가족분들과 몇몇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환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리투아니아 속 작은 한인 쉼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낮선 타지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우정을 쌓고,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방문하시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좋은 곳이라서 혹시라도 관심이 생겨 교환학생을 마음먹으셨다면 방문해 보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하여

첫째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외국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며 그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 거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도 다녀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며, 취업하면 일을 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중 휴학을 하고 떠나거나, 취업 전 시간을 내서 떠나는 등 마음먹고 가서 살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환학생과 같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가는 것과 아무런 기반 없이 홀로 가서 지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단순 ‘이방인’이 아닌, ‘이 나라, 이 대학의 학생’이라는 한 사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좀 더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나와 다른 인종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러 친구들을 만나 사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행을 가서도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그 친구들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할 때쯤이면 떠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며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여행자라는 입장에서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점은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는 한편 잠깐의 스쳐 가는 인연이라는 점이 가장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친구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놀고,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교환학생은 이러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실현하게끔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대방에게 낯선 타인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 친한 친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혼자였다면 해보지 못했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듣고, 여러 동아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으로 갖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낯선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 그 문화와 그 나라 사람의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나름대로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는 리투아니아와 빌뉴스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나라와 대학이 다르기에 “그 나라, 그 대학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 빌뉴스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보다 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에서밖에 즐길 수 없는 큰 경험이자 추억이라는 점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며, 많은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우리 대학과는 다른 수업 방식을 경험해보고 여러 동아리들을 즐겨보는,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